

4/10/16

설교 제목: 양과 염소의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25:36-41

- (마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마 25: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 (마 25: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 (마 25: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 (마 25: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 (마 25: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 (마 25: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 (마 25: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 (마 25: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 (마 25: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 (마 25: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 (마 25: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마 25: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절판주** 행 9:5
(마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 사흘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때 하신 말씀들을 가리켜 감람산 강화 (Oliviette Discourse)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을 것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은 사역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세 비유 중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백보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장엄한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보좌에 앉으셔서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 모두는 심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 의인들이 상속받아 누릴 하나님의 복과 악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 의인들이 받을 영생과 악인들이 받을 영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예수님을, 양은 믿는자 곧 의인을, 염소는 믿지 않는 자 곧 악인을 가리킵니다.

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겔 34:12)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겔 34: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34: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겔 34:19)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또한 오른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영예스러운 자리나 힘,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상속받을 복인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단 7: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나라로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나라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 25: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 25: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 25: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 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마 25: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 25: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마 25: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합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임금이 자신을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주리고 목 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과 동일시 하신 사실과 이런 이들을 가리켜 당신의 형제라고 하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임금이 이런 이들을 가리켜 당신의 형제라고 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나? 심도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이 선행을 베푸는 대상, 그러니까 선행의 수혜자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소외된 모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소외된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는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을 당신의 제자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행 9: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행 9: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주리고 목 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중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기 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곧 믿는 형제 자매 즉 그리스도인들 중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임금은 난데 없이 그들을 저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댁니다.

(마 25: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마 25: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묻습니다

(마 25: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자 임금이 대답합니다'

(마 25: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임금은 그들을 향해 저주받을 자라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들은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같이 국적이나
종교 이념 사상을 떠나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믿는자들끼리는 서로 더욱 각별하고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고 구원에 대해 여지껏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비유에서 임금이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비유는 온통 행위만을 거론하면서 특정 행위를 행한 사람은 영생에, 특정 행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보여져야 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수반되어지는 그 사람의 행위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의인이 되어 영생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이기에 영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착한 일 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깨끗이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가 행하는 선행도 그들 자신의 고유한 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네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해 줍니다.

1.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2. 심판의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믿는 자)과 악인(믿지 않는 자)을 구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 의인(믿는 자)과 악인(믿지 않는 자)은 그들이 형제에게 한 행위로 증명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 의인(믿는 자)은 영생에 악인(믿지 않는 자)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되어 한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남시다.